



주 제:	“ 성부, 성자, 성령 ”	“삼위 일체 대축일”	2009년 6월 7일
복음 묵상:	[마태 28,16-20]	[신명 4,32-34.39-40]	[로마 8,14-17]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호경과 영광송이 의미하듯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가 믿는 교의의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성부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성자는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세주 하느님이시며, 성령은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자연적, 초자연적 모든 생명을 계속 성장시킬 뿐 아니라 살려주시는 우리 신앙 생활의 협조자이시며 위로자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 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믿어야 할 신비의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교리는 우리 신앙의 바탕이요, 기초이며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삼께 대한 신앙생활을 보다 풍성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삼께 깊이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창조주이신 성부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자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성삼께 대한 기도를 열심히 바쳐야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흠송을 드려야 합니다. ‘영광송’과 미사 때 외우는 ‘대영광송’을 열심히 바쳐야 함은 물론 십자성호도 정성껏 긋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천천히 정성스런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정중히 해야 합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 세위가 제심을 믿고 자기의 믿음을 선언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성호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기도이면서도 가장 힘 있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삼의 이름으로 온갖 은총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신앙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인격적인 삶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전주 강명구 신부님 강론에서)



예언 말씀

- +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숨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나를 받으십시오. 나는 언제나 여러분께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나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나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내 품 안에서 내 생명을 먹고 살아가십시오.
- + 나의 자녀들이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시어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 와 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길 것이며 여러분의 절망이 치유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 +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나의 뜻입니다.
- + 사랑 나의 아이들아. 너희들의 이미 빛 가운데 있고 나의 사랑 안에 숨 쉬고 있다. 그러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너희들의 입술을 열어 나에게 대한 너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껏 펼쳐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얘기들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눈을 떴을 때, 너희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닫혀진 그 귀를 열렸을 때에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나에게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속삭여라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들의 삶을 내가 친히 아름답게 가꾸고 있고 펼쳐 놓고 있다. 내 사랑으로 너희는 한말한말 힘차게 걸어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의 그 삶을 미리 얘기 했을 때 너희는 기뻐하여라.

+ 복음 [마태 28,16-20]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1분 명상

♡'안심하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



그대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대가 '안심하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해 주면
그대를 믿고 안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가족조차도 그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 이외수의 《청춘불패》 중에서 -

* 믿고 안심하는 사람,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눈물이 핑도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완성자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미완성자입니다,
다만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서로 노력할 뿐입니다.

생활의 지혜

● **밥의 탄냄새를 제거하려면**

나무주걱이나 나무도시락 뚜껑 같은 것을 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큰 숯덩어리를 한두 개 얹은 후 숯뚜껑을 닫아둔다. 얼마쯤 지나 숯뚜껑을 열어보면 탄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나지 않는다.

●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기**

국수를 삶을 때는 면발의 찰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맛을 살리는 중요한 요령이다.

먼저 냄비에 물을 충분히 붓고 끓인 뒤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한 손가락 넣는다.

그런 다음 국수를 세워서 풀어넣고 5분 정도 끓이다 물이 넘으려 할 때 찬물을 한컵 정도 붓고 저어준다.

그리고 국수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끓인 뒤 즉시 건져내 찬물에 두번 정도 씻으면 면발이 쫄깃쫄깃해 진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에페 6,23).”